

25.05.28.(수)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소상공인 위한 수수료 상한제, 지금이 도입할 때” 더불어민주당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정책협약 후 온라인플랫폼공정거래사장위원회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28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회장 김준형)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와 광고유도 경쟁이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행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24년 정부가 주도한 상생협의체는 기대와 달리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데 실패했고, 플랫폼 기업은 배달료를 인상하고 광고상품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플랫폼 비용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줄폐업’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서민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김준형 공플협 회장은 “현재의 배달앱 수수료 구조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결제수수료 등이 중첩된 ‘풍선효과’ 구조이며, 이를 통합관리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생존은 계속해서 위협받게 된다.”며 “이재명 후보의 ‘총수수료 상한제’ 공약은 소상공인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플랫폼의 과도한 수익편중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협약식 의미를 밝혔다.

민병덕 위원장은 “음식을 만들고 고객을 설득한 것은 사장님이지만, 수익은 플랫폼이 가져간다”며 “무료배달과 광고비, 배차 시스템까지 모두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면 이는 공정이 아닌 착취다. 기울어진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책임 있게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직능본부 부분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가 플랫폼 경제로 변화했고,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 후 온라인플랫폼공정거래사장위원회는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행사 사진]

